

# “기회도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 정세균 국회의장, 신흥고 방문 특강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모교인 전주신흥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정 의장은 신흥고 조제승 교장으로부터 지난 1900년 개교 이래 최초로 '자랑스러운 졸업생상'을 수여 받았다.

정 의장은 “자랑스러운 졸업생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학교 교훈인 지(知)·인(忍)·용(勇)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실천하면서 살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후 정 의장은 후배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후배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과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기까지의 정치 역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또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장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평소 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전주신흥고등학교 스포츠를 기념관에서 '자랑스러운 신흥졸업생상'을 수상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고 있다.

작은 일도 정성껏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강연을 마친 뒤 총학생회 주관으로 학

교 본관 뒤뜰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념 행사에도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안재용 기자

## 무주국민체육센터서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열려

무주청소년수련관과 안성정소년문화의집이 공동 주관한 제19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가 지난 15일 중교동부 2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농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무주국민체육센터를 찾은 300여명의 청소년들은 선수들의 멋진 경기에 열띤 응원으로 함께 호흡하며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 3대3 농구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농구경기를 보면서 함께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해준 친구들과 우정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무주에서 세계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만큼 체육의 다양한 대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통해 무주군의 청소년들은 입상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되는 어울림과 화합의 한마당 장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광영공익재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역출신 독자의 장학금 지원 소식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삼계면 출신 (재)광영공익재단(이사장 허광욱)은 취약계층 가정 아동·청소년 2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은 심민 군수, 허광욱 이사장, 장학생, 가족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허광욱 이사장은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난을 겪으면서 남다른 학구열과 노력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코자 지난 2015년 (재)광영공익재단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24명의 학생에게 2천4백 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허광욱 이사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위대한 꿈을 갖고 노력하면 그 결실은 필히 올 것”이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소의 계층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에 노력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내고향 입실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농협무주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농촌 일손 돕기 나서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이정환)는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전국동시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지부 임직원 및 무주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정명임)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주군 안성면 천마 농가를 방문해 천마 및 대파 심기 일손 돕기 행사를 가졌다.

정명임 농가주부모임(무주농협)회장은 “앞으로도 농협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할 계획이다”며 “노동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 뿐 아니라 도시기업 및 봉사단체들도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농협 무주군지부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서 갈수록 영농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농협 입실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농촌 일손 돕기 실시

농협 입실군지부(지부장 최완)는 입실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과 입실군 농가주부모임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농협 전국 동시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봄 농협 전국 동시 영농지원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고품질과 마을 공동화로 인하여 농촌에서 인력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전 국민적인 농촌 일손 돕기 조성을 위하여 농협에서 실시하는 행사이다. 이날 입실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과 입실군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 명은 오수관촌농협 육묘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 2개 조로 나누어 육묘 관련 일손 돕기와 병행하여 깨끗한 농업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임실=진종영 기자

##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재난대비 비상대처훈련 가져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는 재난대비 비상대처훈련이 동진면 고마저수지에서 부안지사 전 직원을 비롯하여 부안군청, 부안소방서, 유관기관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부안지사는 이날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의한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중단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훈련으로 했다.

/부안=이국수 기자

### 결혼

▲조은상(조영동씨 차남)·조은애(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조미경씨 장녀)양 = 일시: 21일(금) 오후 7시, 장소: 빛과진리교회(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0길 44(전농동 647-39))

\*당일 오후 2시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정문 앞 버스 출발

▲김영태(베드로, 김홍진·강경자씨 차남)·이선진(데레사, 김제시 부시장 이승복·강경자씨 딸)양 = 일시: 22일(토) 낮 12시, 장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 성당

▲권정관(현대다이모스, 부안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장순양씨 장남)·김해경(김금수·김명숙씨 장녀)양 = 일시: 23일(일) 오후 1시10분, 장소: 전주 N타워 1F 바흐홀, 연락처: 010-2601-4561

### 알림

▲2017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하는 식량농정 장터 개장 = 일시: 4.20(목) ~ 4.22(토), 장소: 도의회 광장, 품목: 과일, 채소, 농가공품, 축산물 등(10~20% 할인판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편번호 57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3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6	진안지사 433-3084
효지지사 010-8845-9835	팔백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8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KOLLAR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린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